

2015.10.3. 토 - 11.1.일

지리산프로젝트 2015: 우주산책

성실원, 실상사, 지리산풀레길



남원 일대

- 실상사 일원
- 인월센터
- 달오름마을
- 지리산들레길 등구재

2014년 남원 실상사를 거점으로 시작한 지리산프로젝트

(전라도 권역)의 전시 장소가 올해는 인월 지역까지 확대되었다.

실상사에서는 5-10년간 지속할 것을 계획하고 출발했던 2014년도 작품들의 진행 상황을 볼 수 있다. 한편 지리산들레길 인월센터는 앞으로 지역과 함께 하는 커뮤니티아트의 베이스캠프로 그 역할을 확장하기 위한 공간 정비를 마무리하고 프로젝트에 동참한다.

23

22

참고



1 둘장승 (2014)

성신석조각연구회 Sungshin Stone Carving Association

실상사 안에는 랍천에서 가져온 긴 모양의 돌이 뉘어져 있었다. 성신여대 교강사,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성신석조각연구회는 마치 머리 없는 장승의 몸처럼 보이는 이 돌에 머리를 만들어 생명을 불어 넣고자 했다. 흙수 때 사라진 것으로 전해지는 장승을 대신해, 해탈교 입구 동호금사축귀장군(護護金砂逐鬼將軍, 금모래 가득한 랍천을 보호하고 악귀를 쫓아내는 장군) 맞은편에 이 작품을 뉘어 놓았다.

2 소리 스팟, 뇌귀 BREAR (2014)

정만영 Jung Man-Young

실상사 입구의 해탈교 위에는 뇌와 귀를 합성한 이미지를 그려놓고, 그 교량 아래 돌들을 조금씩 움직여 물 흐르는 소리를 조율한다. '교량위에서 양쪽 귀로 각각 다르게 들려오는 소리가 뇌를 자극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하나의 묘소가 되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이 작업의 제목은 Brain과 Ear를 합성한 신조어 BREAR이다. 해탈의 길도 어쩌면 뇌의 작용에 있을지 모른다. 양쪽 뇌를 연결하는 뇌탕과 실상사로 들어가는 교량(해탈교)이 연결되는 고리는 뇌와 인체와 환경과 우주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상상하는 계기가 된다. 한 장소에서 우주의 구조를 상상하며 해탈의 경지를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을 엿볼 수 있다. 2015년에는 이를질로 인해 물길이 막힌 곳을 열어주고, 바위들 사이에 작은 바위들을 끼워 넣어서 물소리의 음역폭을 넓혔다. 폭우로 인해 새로운 물길이 생기기 전까지 이곳에서는 잔잔한 해탈교의 물소리를 들을 수 있다.

3 지리산 천년의 꿈 (2014-)

성신석조각연구회 Sungshin Stone Carving Association

돌에 새긴 생명평화경과 벽대서원의 경판, 범종교 사민대중이 어머니 지리산의 마음을 담아 민족화해 평화통일 한반도 생명평화 공동체, 21세기 지구촌 생명평화 공동체로 향해 나아갈 방향과 길을 제시하는 사상과 정신을 담았다.

4 가득함도 빛나고 비움도 빛나라 (2014-)

안상수 Ahn Sang-soo (feat. 김경찬)

기둥(柱)마다에 시구를 연하여 걸었다는 뜻에서 주린이라 부르는데 좋은 글귀를 암은 판자에 새겨 건다. 실상사 입구 천왕문 기둥에 '가득함도 빛나라 비움도 빛나라'라는 한글로 된 주련을 만든다. 가득함(충만)과 비움(무소유)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이 글귀는 실상사 노래에도 나오는 가사로 실상사가 추구하는 가치를 표현한 것이다.

- 달오름마을 (전북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327-3)
- 25. 달오름마을 벽화 프로젝트 / 장용근

- 지리산 풀레길 인월센터 (전북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198-1)
- 26. 인월센터 공간재구성 프로젝트 / 장용근
- 27. 카페 off 프로젝트 / 강영민
- 28. 인월센터 벽화프로젝트 / 박명근

5 사실당프로젝트 (2014-)

김기라 Kim Kira

사실당(思審堂)은 생각 사(思)자에 살필 심(審)자를 써 생각을 살피고 사상을 밝게, 환하게 하는 사색의 장소이자 풍채 담당한 자연과 시간의 터를 의미하는 공간에서 출발한다. 사사로운 마음, 사심(私心)을 갖고 들어섰더라도 사실(思審)하고 돌아갈 수 있다는 중의적 의미도 담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10년 동안 원형 형태로 100그루의 나무를 심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처음에는 그 존재가 회미하던 빈터가 시간이 더할수록 나무가 서있는 곳, 숲이 무거진 곳으로 성장·변화하는 과정에서 공간은 시간성을 함축한 사유적 공간으로 성장한다. 올해는 드로잉과 조감도를 설치하여 10년 간 본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실상사와 산림청, 작가의 아이디어가 시행되는 협업의 과정들을 보여준다.

6 둘꽃길 (2014-2015)

성신석조각연구회 Sungshin Stone Carving Association

극락전 안마당에 놓여있는 바닥들에 만개하는 과정의 연꽃 무늬를 새겨 넣어 극락정토로 가는 꽃길(花道)을 만든다. <둘꽃길>은 씨앗이 짹을 틔워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은 후 물방울로 돌아가는 과정에 빗대어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이야기한다.

7 광배프로젝트 (2014)

김기라 Kim Kira

부처님의 몸에서 나오는 빛을 상징화한 광배(光背)는 깨달음의 빛이며 지혜와 권능, 스스러움의 빛이다. 부처님이 발산하는 광배의 빛은 깨달음의 정신적 에너지이며 지혜이기에 구구절절한 설명과 설득 없이도 그 빛을 보고, 빛는 것만으로 깨달음을 경험하고 지혜를 공유할 기회와 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다. 불상의 시대적 변천에 따라 광배에 포함되는 두광(頭光)과 신광(身光)의 형태는 원형, 타원형, 뾰족한 곡면 등으로 변화했고 그 안에 표현된 문양 또한 용, 연꽃, 화염문 등이 다채롭게 등장한다. 이에 현대 미술적 접근으로 광배를 해석해 실제로 빛을 발하는 설치작품을 고안했다. 유형의 불상에서 경험했던 광배와 달리 무형의 빛의 형태로 제작된 광배는 손으로 만지거나 키울 수는 없지만 그 본질적 의미는 더욱 분명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낡고 퇴색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과 함께 생각을 밝히고 사색하게 만든다. 빛의 속성을 활용한 현대적 광배의 빛은 감렬하게 인쇄돼 눈길을 사로잡는 동시에 응시할수록 점점 빨려 들어가 마침내 빛과 내가 흔연일체가 되는 수행자적 순간을 경험하게 유도한다.

8 백자만다라 (2014)

정재철 Jeoung Jae Choul

'장소는 성장한다'. 긴 역사의 흔적을 간직한 채, 고스란히 자기 스스로의 기록을 나이테처럼 품고 있는 실상사의 한

작은 공간이(어쩌면 장소라기엔 이제는 회미해진 어떤 곳이)

새로운 장소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진행한 작업이다. 경내에 흩어져있는 자연석을 모아서, 좋은 그늘이 생길 듯한 나무 밑에 쉼터를 만들었다. 높은 자연석들은 탁자와 의자로 기능을 하길 바라지만 쓰는 사람들의 사용방식에 맡겨질 뿐이다. 그 공간이 습풀 때, 기쁠 때, 렴온할 때, 쉬고, 놀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들과 관계맺음을 계속하기 바란다. 작가는 그 장소(쉼터)의 지하에 국토정중암 '양구'(양구 백자박물관 협조)에서 생산된 백자토로 직접 만든 '백자만다라'를 청중히 모셨다. 이 소소한 일을 통해, 그 작은 공간이 사람들의 기억과 추억을 품는 장소로 성장하는 단초로 만드는 것이 작가의 희망이다.

9-1 실상사 소리풍경 (2014-2015)

정만영 Jung Man-Young

실상사의 4월 5월 6월, 10월의 소리들을 채집하여 순환의 장소, 변소화랑에서 새로운 소리풍경을 만들어 낸다. 조용한 실상사 내에 독립된 공간이라 더욱 조용한 변소화랑에서 생명의 소리를 들으면서 나자신과 우주의 모습이 소리로 연결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9-2 실상사 사운드 드로잉

실상사의 소리 스Patrick을 드로잉으로 표현한 작품

9-3 실상사 소리지도

실상사와 그 주변에는 아주 많은 소리들이 존재한다. 경내에서는 아주 이쁜 새벽에서부터 저녁까지 다양한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 실상사로 들어가는 길, 해탈교, 많은 논들, 송림, 화림원의 숲, 실개천, 비닐하우스 등, 다양한 소리를 그림으로 담는다.

10 그 총알들 어디로 갔을까 (2015)

박영균 Park Young-Gyun

제주 4.3의 아픔이 서려 있는 이덕구신전의 풍경에 고은 시인의 <추억 하나> 가운데 한 구절과, 바국의 시간을 암시하는 시기를 적어 넣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적대적 갈등 상황의 덧없음을 이야기한다. 이 메시지는 '생명과 평화'를 추구하는 지리산프로젝트의 지향과 닮아 있다.

11 하늘이거나 땅이거나 (2014-)

전경우 Chun Kyungwoo

이 퍼포먼스, 설치 프로젝트는 지리산 실상사 인근의 마을 주민들과 작가가 협력하여 짧은 시간 완성해가는 프로젝트이다. 이 안에는 인간이 타인을 통해 비주어 보는 내면의 상태를 단순하고 일상적인 행위를 통해 물질화시키고 자연의 섬리에 따라 변해가며 서서히 완성되어가는 과정이 담겨 있다. 마음의 상태가 물질화, 시각화를 거쳐 다시 비물질화 되는 이 과정은 매우 작은 오브제(찻잔)와 마시는 물을 통해 시작되며, 이 편법한 묘소들은 참여하는 사람들 각자를 대리하는(representation)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땅에 자리를 잡은

이 작은 물질들의 변화는 오랜 시간을 통해 공간과 마음에서 서서히 그 물림을 갖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타인', '상처'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의 상태에 관한 탐구이며 자연의 숭고함과 시간을 통해 드러나는 삶 속의 공간에 관한 것이다. 1년에 2회의 퍼포먼스와 설치가 5년간 이루어지며 절의 경내 곳곳에 설치되어지는 찻잔들은 언젠가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로 채워지게 되고 서서히 땅의 일부가 되어간다. 모든 잔 아래에는 참가자들의 시간의 기록이 새겨지며 각자는 절 안에 두고 오는 잔과 내적인 연결고리를 갖게 된다. 하늘과 연결된 통로와도 같은 이 작은 잔의 수면은 계절의 변화, 밤과 낮, 하늘의 색에 따라 변하기도 하며 땅의 미생물, 균충들의 워터가 되기도 한다.

12 빛304 (2014)

안상수 Ahn Sang-soo (feat. 신믿음)

실상사 목탑지에는 생명평화깃대와 세월호 희생자를 상징하는 304개의 빛을 두어 어둔 밤을 밝힌다. 세월호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우리시대의 마음을 모으고, 그것을 담는 상징으로서의 생명평화무늬 깃발을 만들어 깃대 위에 세웠다. 304개의 빛이 애도와 기억의 의미라면, 생명평화무늬 깃대와 깃발은 기원과 희망의 의미를 담았다. 세월호 기도단은 그 둘을 끼안은 어머니의 마음이다.

13 실상사 기도소 416-304 (2014)

장영철 Jang Young Chul

소원을 빌며 탑들이를 했을 실상사 목탑지 옆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레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반외부공간 형식의 건축물. 야외에 있지만 기도를 할 수 있는 중앙부분은 바닥과 치붕으로 눈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전환과 전이의 공간이다. 역설적으로 있는 듯 없는 듯 편안한 명상의 공간이지만 세월호 304명의 희생자를 잊지 않도록 304개의 대나무 부재를 기둥으로 사용한 삼진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14 풀솟대 (2015)

설신석조각연구회 Sungshin Stone Carving Association

풀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마물을 수호하는 삼징물로 세우고 하는 솟대를 목탑지에 세웠다. 실상사 인근에서 구한 돌을 이용하여 제작했다. 솟대 끝의 새들은 천상계의 신과 마을 주민을 연결해주는 전령조일 뿐 아니라,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삼징물로 여겨진다. 목탑지에 자리잡은 본 작품은 영적인 여행을 떠나는 이들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15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 (2011)

김기라 Kim Kira

이 작업은 인간 존재의 물음과 함께 탄생한 신화와 종교적인 제의가 사회·경제나 인간의 역사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는 어른이 된 한 인간이 물질적인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타인을 바라보거나, 인간 중심에서 생명을 바라보는 시각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16 새로운 세계화_사상화思象畫_365초 (2015)

김형규 Kim Hyungkyu

정보와 인터넷, 사물의 기록들은 미디어 매체로 동시성화되어 세계의 표준시와 실시간이라는 개념을 재편화시키고, 현재라는 벽에 부딪힌다. 이 '속도와 시간'을 사유의 개념으로 전환하여 제작한 이번 프로젝트는 실상사의 하루를 타임캡스 활용기법으로 담는다. 하루의 시간이 영원의 시간인 것처럼, 또는 현재의 시간을 앞으로 남긴다. 새로운 세계, 혹은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고 현재와 미래를 가능하는 속도의 사유를 개념화하여, 미래의 의미를 담고 있는 영부전에 설치한다.

17 무궁화프로젝트 (2014-2015)

강영민 Kang Young Mean

(1) 악사전 앞

천년 세월을 보내오면서 호국사찰로 알려진 실상사에는 유독 일본과 막힌 설화가 많이 전해진다. 지리적으로도 악사전의 악사여래불은 천왕봉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천왕봉 너머에는 일본의 후지산이 일직선상으로 놓여져 있다. 이런 사찰의 애국 코드를 스님들과 강영민, 팝아트협동조합 작가, 일간베스트 회원, 무궁화사랑협회 회원들이 함께 실상사 악사전 앞에 무궁화를 심는 퍼포먼스로 연결한다.

(2) 지리산 둘레길 등구재

"피어라 우주꽃 무궁화"라는 슬로건으로 2014년부터 이어진 무궁화프로젝트. 2015년에는 지리산 둘레길 등구재에 무궁화 나무 40여 그루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심었다. 등구재는 경상남도 함양군과 전라북도 남원시의 경계로서 새색시가 꽂기마다 고 넘던 고개라고 한다. 경계에 세는 일은 언제나 설레임과 두려움을 동반한다. 이 오래된 길 위에 등서화합과 생명평화의 메세지를 전하고자 한다.

18 악사전 주련 (2015)

안상수 Ahn Sang-soo

악사전에 설치하는 한글 주련으로 10월 25일에 설치한다.

19 지리산 생명평화의 춤 (2015)

이호신 Lee Hoshin

실상사 악사전에 모신 '철조여래좌상'(보물 제41호) 후벽에 자리잡는 <지리산 생명평화의 춤>은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과 형식을 지향하며, 지리산이 품고 있는 자연과 문화유산의 역사성을 고찰하여 이를 소재와 배경으로 삼아 '악사전 철조여래좌상'이 갖는 불성(佛性)과 법열(法悅)을 극대화한다. 그렇게 지리산 천왕봉을 향해 앉은 불상의 뜻을 역사성으로 기리고, 오늘의 현실을 살피며, 미래를 향한 부처의 마음을 담고자 했다.

어미니의 산으로 불리는 지리산과 그 삼장인 마고할명 이미지는 약사전 부처의 뜻과 상통한다. 이 두 삼장들을 토대로 펼친 학연 안에는 지리산 지역권(남원 함양, 산청, 하동, 구례)에 산재한 불교유산과 민간신앙, 자연생태, 생활문화의 만남을 통한 인드라망의 세계를 담았다. 삼호 유기적인 관계, 상생의 역사와 오늘의 지리산 이야기를 지리산과 함께 사는 <지리산 생명평화의 춤>으로 완성했다. 본 작품은 10월 25일 봉안식을 거쳐 설치한다.

20 RGB lights_시각의 신세계 (2015)

김기라 Kim Kira + 임선희 Lim Sun Hee

본 작품은 컬러 디스플레이전이나 컬러 모니터, 빛을 이용하는 표시 장치에서 채용하는 빛의 3원색 RGB(적, 청, 블루)에서 착안하여, 공간에 대한 시각적 보정 장치로써 빛을 구체화한 공간설치작업이다. RGB는 단청의 색에서 모티브를 가져왔으며, 작품이지만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보충의 보충 같은 형태다. 이 작업을 통해 관찰자는 공간, 사물에 대한 시각적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다.

21 소리 스팟_돌담 범종소리 (2015)

정만영 Jung Man-Young

실상사 약사전 뒤쪽 소리 듣기 스팟은 새벽과 저녁예불시에 울리는 범종소리를 듣는 포인트다. 이 지점은 약사전 뒤로 굽절되어 휘돌아 오는 범종소리와 약사전 뒷쪽의 높이가 낮은 돌담에 반사되어 들리는 범종소리가 같이 들이는 장소다. 종소리가 두 번 틀리면서 담에서 소리가 나는 듯한 느낌을 준다. 특히 이 장소는 범종소리, 예불소리, 많은 풀벌레 소리, 대나무 숲의 새소리, 그리고 마을에서 들이는 소리 등 수많은 소리 레이어가 만나는 곳이기도 하다. 지붕이 있는 범종각의 구조상 소리가 높이 피져나가기보다는 낮고 넓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현상으로 보인다.
소리듣는 시간(서서 듣거나 앉아서 들을 수 있음)
하절기: 새벽예불 4시 20분, 저녁예불 7시
동절기: 새벽예불 4시 20분, 저녁예불 6시

22 우주예술창고 (2014)

박영균 Park Young-Gyun

실상사 경내 항고에는 우주 같이 만물이 담겨 있다. 숨기고 감출 게 아니라 외벽에 창고 내부의 모습을 드러내 그려넣는다. 창고 외벽 전면에는 한국의 역사와 동시대의 시대상향이 만들어낸 좌우익 단체들의 로고를 뒤섞고 뒤집어서 마치 우주의 꽃처럼 표현한다. 이 그림은 우리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포장박스에 담아 우주로 돌려보내는 우주의 참고이다.

23 사라진 정원 (2014)

정해경 Jung Hye Kyung

실상사에서 유물(고려시대 정원터)이 발굴되었지만 유물터는

다시 흙으로 덮었다. 이후 자라난 풀숲에 묻혀진 유물, 정원터는 흔적도 없이 가려져 있었다. '문화재 조사증'이라는 안내문구가 아니라면 그곳이 어떤 장소인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곳으로 변해 있다. 실상사에서는 세월호 친상규명 천일기도를 시작했다. 정혜경은 2012-2013년 제주도에 머물며 김정 해군기지 반대운동에 동참했고 밀양 송천탑 시위 현장에도 잠시 머물렀다. 서울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불합리한 현장이 서울을 떠나며 보이기 시작했다. 사회구조 속의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불합리한 경계를 사이에서 사회모순과 양면은 계속 대립되고 있었다. 그는 실상사 고려시대 정원터 발굴현장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모습이 우리의 현실처럼 느껴졌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사회의 아픈 현장처럼 받아 들여졌다. 그는 실상사에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세월호 친상규명 판화를 선물 받았다. '사라진 정원'은 지금은 자라난 풀숲에 가려졌다고 해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와 같은 맥락으로 정의한다. 실상사 바깥쪽 원두막을 '사라진 정원'의 내용을 내포하는 오브제로 사용한다. 아크릴 거울로 외형을 덮어 그 장소가 사라져 보이고 주변의 장소가 그대로 반사되게 착시현상을 준다. 원두막을 과거의 시간, 역사, 사건을 거울이라는 오브제로, 가시적인 장소를 비가시적인 장소로 새로운 내러티브를 담아내는 도구로 사용한다.

24 천년 묵은 먼지 (2014-2015)

장유정 Chang Yujung

실상사 유적발굴지의 깊이 파낸 토층에서는 다양한 깊이로 박혀있는 강돌멩이를 볼 수 있다. 역사란 결코 정확할 수 없다. 언제 누가 왜 이 돌을 어떤 상황에서 물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다. 밭굴 단계에 따라 드러난 다양한 층의 유적(고려·조선·현대)을 보았고, 그 유적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들었다. 천년 전의 먼지를 마시면서 역사적 근거와 학술적 가치를 배제한 채 자신의 상상속 구조물을 그려본 작가는, 밭굴 과정을 관찰하고 기록하여 단행본을 출판하였으면 이번 전시에는 출판물과 관련 작품을 설치한다.

25 달오름마을 벽화 프로젝트

장용근 Jang Yong Keun

(다디갤러리카페 전북 남원시 안월면 안월리 327-3)

달오름 마을 골목 곳곳에 지역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벽화 작업을 진행형으로 추진한다.

26 인월센터 공간재구성 프로젝트

장용근 Jang Yong Keun

기존에 지리산둘레길 안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온 인월센터, 인월지역의 커뮤니티아트 베이스캠프로 그 역할을 확장시키기 위한 기초작업이다. 공간 전체의 동선을 정리하고 재구성하여 센터를 찾는 이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27 카페 off 프로젝트

강영민 Kang Young Mean

작가는 2014년부터 지리산 일대에서 캠핑을 해 왔다.

올해는 지리산 종주와 둘레길을 둘며 스마트폰으로 찍은

<무빙스틸(Moving Still)> 연작들을 텐트에서 상연하며

관객들에게 작가가 만든 각테일을 나눠 줄 예정이다.

<무빙스틸>은 작가의 마음에 와닿는 풍경들을 10초간 숨을

멈추고 찍은 사진들이다. 흔들리는 영상들은 작가의 신체를

대변하며 관객들에게 자연의 호흡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본

작품은 프로젝트 개막 당일 산청 성심원 대성당 앞에 설치하고,

이후 지리산둘레길 인월센터로 옮겨온다.

28 인월센터 벽화프로젝트

박영근 Park Young-Gyun

인월센터 외벽에 센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벽화를 전시기간동안

완성한다.

지리산 프로젝트 2015: 우주산책

개막식

2015. 10. 3. 토, 14:00, 산청 성심원 대성당

학술심포지움

2015. 10. 3. 토, 14:30-18:00, 산청 성심원 대성당

1. 한국인의 산천유전자와 지리산

/ 최원석, 경상대 교수, 명산문화센터장

2. 문명과 야생, 과학과 민속자식의 변증

/ 주강현, 아시아퍼시픽 해양문화원장, 제주대 석좌교수

3. 과학정신과 예술

/ 이정원, 메트리 연구원

4. 과학, 예술, 종교의 융합적 사유와 실천

/ 양원모, 경기도미술관 학예실장

* 분과토의, 종합토론

콘서트

2015. 10. 17. 토, 18:00-22:00, 하동 평사리

우주예술캠핑콘서트

주최 | 지리산프로젝트추진위원회 주관 | 사단법인숲길, 지리산과성진강사람들

협력 | 성심원, 실상사, 사단법인 숲길, 경남도립미술관 후원 | 남원시, 선형군, 하동군, 구례아이쿱자연드림파크

본 사업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시도문화기획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jirisanproject@gmail.com jirisanproject.net